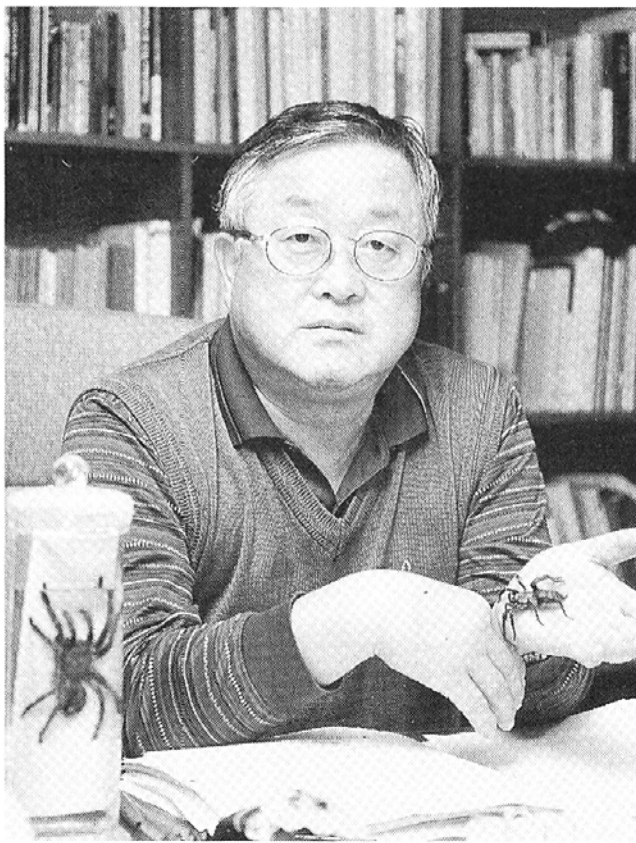


# “거미연구 인류와 자연사랑”

## 산문박의 禱

거미연구소 김주필 소장



생활공간에서 쉽게 만나는 거미, 혹은 이라도 거미를 징그럽거나 무섭다며 멀리하는 이가 있다면 동국대 응용생물학과 김주필교수(54·한국거미연구소장·02-294-8900)를 찾아보라. 그를 만나면 약의 상상이 아닌 인간의 동반자로서 거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는 언제나 ‘거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거미는 해충을 먹고 사는 절지동물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양을 소화하는 포식성동물입니다. 거미를 이용하면 벼농사를 지을때 농약사용량을 65%나 줄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사람에게 가장 친하다는 개는 광견병을 옮기지만 거미는 질병을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를 없애줍니다. 그런데도 거미는 푸대접을 받거나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농업혁명을 이룬 농약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파괴하고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해충뿐 아니라

인간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 학자들은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천적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충을 잡아

먹는데 거미를 따라갈 천적은 없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진 요즘 거미를 연구하는 동호인의 숫자가 선진국의 척도

로 평가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2천5백년전, 부처

님은 유정·무정 할 것없이 모두 불성이 있다며 더불어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식량확보를 위해 농약을 발명했고, 무차별 사용으로 곤충을 몰살하고 있습니다. 농약이라는

폭행으로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인간이 살고 자연이 살 수 있는

대안으로 거미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식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입니다.”

이 정도면 김교수의 거미예찬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60년대 초반, 서울대 동물학과에 재학중이던 김교수는 문득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는 발원을 세웠다. 시설과 장비가 부족했던 당시에

환경과수꾼 거미는 더없는 연구대상이었다. 인류에 유익한 동물 가운데 개척해야 할 분야에서도 거미연구는 특별한

장비없이 ‘뚝으로 때우면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승이 한 소식했을 때의 희열은 참으로 대단할 것입니다. 저에게 화두가 있다면 그것은 거미가 되겠지요.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거미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은 곧 선승의 깨달음 아닐까요.”

김교수가 드는 화두의 장에는 고독이다. 30여년 거미를 찾아 전국방방곡곡을 헤메고,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밀려오는 것은 혼자서 외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선승에게도 스승이 있어 기쁠 곳이 있는데, 거미라는 화두는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던 것이다. 그래도 미개척 분야를 헤쳐간다는 것은 힘든 만큼 보람도 있다. 10년전 4백

여종이었던 한국의 거미가 6백여종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 김교수가 발로 뛰며 찾아내 학계에 보고한 것이다. 한반

도 서식하는 거미가 1천여종으로 추정돼 김교수의 고독은 계속되고 있다.

“거미란놈은 참으로 용한 동물입니다. 사회생활이 아닌 단독생활을 하는데 서식밀도를 잘 조절해요. 수요·공급의 법칙이 철저히 이루어져 먹이 때문에 다툼이 별로 없습니다.”

거미는 그물을 쳐놓고 먹이가 걸려 들때까지 기다리는 참을성이 있다. 최초의 거미가 3억년전에 나타났고 거미의 먹이인 파리가 1억5천만년전에 등장했으니 파리를 먹기위한 거미의 기다림은 시간을 초월한다.

거미의 모습에는 인간에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 단풍이 한창인데 나무기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당거미를 살

펴보라. 외부로부터 발견되지 않도록 난과를 만들고 날이 추워지면 난과를 꼭 껴안고 그대로 겨울을 난다. 날이 풀려 4백여개의 알이 깨어날때면 어머니는 미미라가 되어 산산이 흩어진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새끼들은 따뜻한 겨울을 나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러한 거미의 생태를 접할때마다 생명에 대해 경이심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곤한다. 후학들에게도 생물학으로서의 거미보다는 거미의 생태를 통해 자신을 반조할 것을 강조한다.

최근 벼농사는 물론 산림을 복구하는데 거미를 이용하는 연구가 속속 공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거미줄을 이용한 생활용품개발은 빠른 속도로 발

### 벼농사·산림보호 유익한 환경 파수꾼 사재털어 외길개척... 최고장애는 고독 신중찾은 희열 선승의 깨달음과 비슷 “한반도 서식 1천여종 다 찾겠다” 서원

전하고 있다. 모두가 선진국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일이다.

84년 김교수는 더 이상 정부가 해주 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어 사재를 털어 한국거미연구소를 만들었다. 왕십리 대영E.M.I.학원 지하에 자리한 연구소에는 상근연구원 5명을 비롯 60여명의 연구원이 거미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대영학원은 젊은시절 학원강사로 유명세를

받던 김교수가 미련해 운영하는 학원이다. 막대한 연구소 자금을 학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김교수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거미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해마다 여름이면 초·중·고

생을 대상으로 거미교실을 열고 거미에 관한 저술작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김교수는 요즘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거미채집에 나선다. 산속을 뛰다니보면

사람에서 숙식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 언젠가 사찰에서 만난 불자가 넌지시 질문 하나를 던졌다.

“저는 살생하지 않겠다는 계를 받았 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살생하기 위해 절을 찾았으니 어떤 연구입니까.”

“제가 할 일을 마땅히 할뿐이지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미 연구에 평생을 바친 김교수. 그에게 거미채집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방식’임을 누가 알 것인가.

이준엽 기자

### 왜 윤회를 하게되지요

**문** 모든 중생의 본성은 불성 그 자체인데, 그래서 부중불강 불구부정요 무 무명이라 하는데 어째서 무명때문에 타락하여 윤회를 하게 될 수 없습니까. (강명숙·경북 포항시 대산동)

**답** 부처님께서 우주의 시초, 바로 태초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는 ‘무시이래’라고 하셨습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에 묶여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나오는 것이 흘러갈 곳이 있고 공간은 그 크기가 정해진다

고 말합니다. 물론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그러나 불성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새가 있거나 어떤 성질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불성이란 말로하자면 일체의 근본이요 우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형체나 크기가 있는 게 아니니 늘거나 줄다는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형상으로 그려 볼 수 있는 게 아니니 물이든다 안된다는 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그 뜻을 알고 싶니다. (정여진·경기 광명시 하안동)

**답** 공부하는데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은 중요합니다. 사무치치 않으면 건성이 되기 쉽지요.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하는게 간절하고 지극한 것이냐를 따져야 할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지극하고 어디까지가 건성인지는 기준도 없을뿐더러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요. 그것 또한 번뇌망상일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놓아 버림은 잘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무치다하는 것은 물에도 피가 배일 만큼의 진한 정성을 말합니다. 다른 용어로 는 삼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상사상이 난 사람이 임을 그리워하듯 그렇게 내 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라야 이 공부는 맛도 보고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왜 내는 그렇게 인물이 열려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끊어 부스럼을 만들거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다 놓았으니 이제 없고 주인공 너만이 있고 너만이 다 하는 것이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라, 간절한 것도 네 용이로 간절하지 않은 것도 다 네 몫이다. 나는 다 놓아버렸으니 나라는 존재는 이제 없다’ 하고 몰락 놓으면 그게 간절한 것이고 사무

### 지 상 상 담

### 길은 묻는 이에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만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중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로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중담에 드립니다. 이 지상담은 조계종 한양대총림 대흥사법계 문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선사들은 굳이 말하러만 그냥 일심이다. 한 마음이다 했던 것입니다. 마음에 형체가 있느냐고 묻는다면 있다고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마음이 없느냐고 하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기 전까지는 이렇어서 그냥 한마음이요 그냥 부처요 진여요 진리요 도요... 뭐라해도 좋습니다.

일체만물은 그 불성을 근본으로서 가지가지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느냐? 시작은 시작으로부터 인연과 나쁜 것인데 마치 허공에 구름이 생겼다

가 사라지곤 하듯이, 물이 얼어 얼음이 되었다가 녹곤 하듯이 그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뭇기 전과 후가 다르다면 그것도 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은 여려한데 현상계가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다하니 상으로 보고 들고 한눈에 다 환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놓는다 놓는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은 막상 놓는다면서 놓아진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해야 놓아지는가, 내가 놓기는 놓는다 했는데 진짜로 놓아진 것인가 하고 궁둥더기로 많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아, 놓을 양이만큼 몰락

놓으라고 했지, 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라고 했지 놓아졌는지 안놓아졌는지 그런 것 따지라고 했습니까, 몰락 놓고 가세요.

또 무통장입금이라는 것은 유의 통장이 아닌 무의 통장을 말한 것입니다. 은행에 통장 만들어 놓고 돈을 예금하듯이 내마음으로 무의 통장에 저금을 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먹은 마음이 없어 무주상으로 하면 무통장의 예금고는 속속 늘어날 것이지만

이렇게하면 공역이 된다더라 하는 것은 아닌 줄 아셔야 합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인연도라, 연기법이 있을뿐이어서 일체는 근본이 없지 않고 그 시작과 끝을 논할 수 없는 ‘무시이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로해서 설명될 수 있는게 아닙니다.

## 청암사 승가대학 신입생 모집 공고

청암사 승가대학에서는 1997학년도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 모집학과 : 사미니과

■ 모집인원 : 00명

■ 편입생 지원자격 : 타 승가대학 휴학기간 2년 경과한 자

■ 구비서류 : ① 입학원서 (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② 승려증 사본, 은사스님 추천서, 건강진단서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증 양면복사본  
④ 본인(법명) 도장, 사진 (3x4Cm) 4매

■ 준비물 : 가사장삼(오조), 필기도구

■ 전형일시 : 1997년 1월 18일 (음력 12월10일) 오전 8시

■ 도착일시 : 1997년 1월 17일 (음력 12월 9일) 오후 4시까지

■ 연락처 : 경북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688번지 ☎(0547)437-0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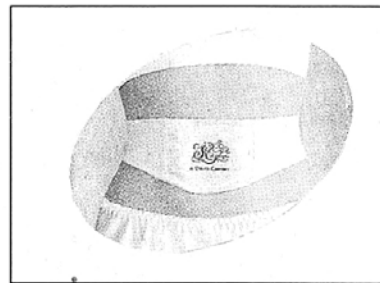
☞ 교통편

• 김천 시외버스 정류소에서  
• 오전 - 7시 35분, 8시 40분, 10시 10분, 11시 50분  
• 오후 - 12시 50분, 3시, 4시 30분, 6시 50분

청 암 사 승 가 대 학 학 장 지 형

##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쳐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 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껍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일이 지나가자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향비를 사용해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핏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 5. 기미가 있다. (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 10. 생리 때 배앓이 심하고 고통스럽다. (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 살이 있다. (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 17. 변비가있다. ( )
- 18. 당뇨와외상선고통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